

거대한 땅에 인구도 많은 인도는 언어와 음식, 축제, 정치 등이 놀랄 만큼 다채롭다. 하지만 인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있으니, 바로 인도 전통 의상 '사리'에 대한 애정이다. 인도의 도시와 시골은 물론 사원, 시장, 영화관, 심지어 해변에서도 사리 차림의 여성을 볼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은 전통 복장을 버리고 서양식 셔츠와 바지를 입은 지 오래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 헐렁한 바지와 긴 셔츠로 이루어진 의상인 '살와르 카미즈', 치마, 최근에는 청바지와 바지가 옷장을 더 많이 차지하지만 말이다.

길이가 3~8미터에 달하는 사리는 기원전 2800년 인더스강 유역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졌다. 기원후 초반 몇 세기 동안의 역사 기록 및 사원의 동상과 조각상을 살펴보면 당시 여성들은 헐렁하게 걸치는 옷을 입었다. "일상복에 관한 초기 기록에 따르면 남녀 모두 바느질하지 않은 천을 걸쳐 입었어요." 직물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스리마티 모한의 말이다.

오늘날 '사리'라고 불리는 옷이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 옷이 지닌 생명력과 다양한 쓰임새를 증명한다. 사리를 걸치는 방법, 즉 드레이프 스타일만 거의 100가지에 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은 인도는 물론 이웃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일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니비' 스타일이다. 니비는 옷감을 허리춤에 집어넣은 뒤 남은 부분의 주름을 잡아서 한쪽 어깨에 늘어뜨려 몸을 감싸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리는 '촐리'라 불리는 배꼽이 보일 정도로 짧은 블라우스, 속치마와 함께 착용한다. 하지만 평상시나 공식 행사, 혹은 축제에서 사리를 입는 방식은 지역과 마을마다 다르다. 드레이프 방식에는 니비 스타일 외에 앞부분에 주름을 잡고 머리 덮개로도 사용하는 사리의 끝자락인 '팔루'를 양쪽 어깨에



Indians may differ from one another on a wide variety of things: language, food, festivals, politics and much more. But if there's one thing that unites people across the country, it's love for the sari. Almost anywhere in urban or rural India — on the streets, in temples and markets, at parks and cinemas and even at the beach — the sari makes its presence felt. While urban Indian men have adopted Western shirts and trousers as everyday wear for several decades now, women still retain a fondness for the sari, even if it makes up just one part of a larger wardrobe that comprises salwar kameez (long shirts worn with drawstring pants), skirts and, more recently, jeans and trousers.

Spanning 3 to 8m in length, the sari is said to have originated in the Indus Valley as early as 2800BC. Historical records and even sculptures and statues at temples from the early centuries of the Common Era depict women dressed in loose, flowing garments. "In all the early references to everyday attire, we see that both men and women wore unstitched cloth," says textiles researcher and entrepreneur Sreemathy Mohan.

The fact that the costume we now know as the sari has withstood the test of time is a testament to not just its resilience but also its versatility. Although there are nearly a hundred ways to drape the sari (also spelled saree), the most common style — both in India and in neighboring countries like Nepal, Bangladesh and parts of Sri Lanka and Pakistan — is known as the Nivi drape. Here, the cloth is wrapped around the body, pleated and tucked at the waist and hung loosely over one shoulder.

Typically, saris are worn with a petticoat and a blouse called a choli, with the midriff left bare. However, every region and community has its own unique drape that women may follow either in everyday dress or during formal and festive occasions. Apart from the Nivi, there

천이 오른쪽 어깨를 지나 앞으로 내려와 양손이 자유로운 '시다 팔루' 방식으로 '사리'를 입은 무용수들(왼쪽), 사리 차림의 순례자들(오른쪽 페이지),

Two traditional dancers wear saris with a seedha pallu drape, where the veil falls toward the front over the right shoulder (left). Pilgrims dressed in saris leave the ghats in Varanasi (opposite).





걸치는 벵골 스타일도 있다. 과거에는 상류층 여성이 팔루의 끝부분에 열쇠 꾸러미를 달아서 팔루를 고정하는 동시에 가문에서 자신이 중요한 위치임을 과시하곤 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와 인도 북동부 지역의 사리는 '세트 문두'와 '메켈라 차도르'라 불리는 투피스 세트다. 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주에서는 천이 오른쪽 어깨를 지나 앞으로 내려와 양손이 자유로운 '시다 팔루' 방식으로 걸친다. 그런가 하면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의 시골 지역에서 입는 '나우바리' 드레이프 방식은 사리를 거의 바지처럼 활용한다. 이 경우, 다리 사이로 옷감을 당겨서 남는 옷감을 허리춤에 집어넣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다. 남동부의 타밀나두주 브라만 계급 여성은 특히 예식 행사에서 나우바리 드레이프와 유사한 '마디사르' 드레이프 방식으로 사리를 착용한다. 드레이프 방식이 무엇이 됐든 늘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의 블라우스, 전통 장신구와 함께 입으며 때로는 머리에 생화를 꽂기도 하고, 힌두교도는 이마에 장식용 점인 '빈디'를 찍거나 붙인다. is the Bengali style of drape, with pleats in the front and the *pallu* (the loose end, which can act as a veil) draped over both shoulders. In the past, women from the upper classes would also tie a bunch of keys to the end of the *pallu* to make it stay in place and to convey their status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household.

In the southern state of Kerala and in the northeast, saris are comprised of two-piece sets known as *set mundu* and *mekhela chador*, respectively. Then there's the *seedha pallu* drape found in Gujarat, where the veil falls toward the front over the right shoulder, leaving the hands free. Several styles of drapes, such as the *nauvari* in rural Maharashtra, also create a division between the legs with pleats tucked at the back, so the sari almost doubles as a pair of trousers, allowing greater freedom of movement. Women of the Brahmin caste in Tamil Nadu have the somewhat similar Madisar drape, especially as ceremonial wear. Whatever the drape, saris are accessorized with different blouse styles and designs, traditional jewelry and, often, fresh flowers in the hair or a bright bindi on the forehead if the wearer is Hindu.

Experts say that these drapes aren't just influenced by local culture but also by geography and function. Given that the sari is a loose, flowing garment, it's the specific drape that allows women in India not just to walk freely, but to dance, drive motorbikes and use crowded public transport without constantly tending to it. In fact, there are paintings and written records of royal women from the 18th and 19th centuries going to battle on horseback, their sari worn like leggings, with ends firmly tucked at the waist.

"The way women wear the sari reflects their regional identity and the local climate, as well as their lifestyle and work patterns," says Mohan. "For instance, women working in the fields and going out to fish in their boats still wear saris divided at the legs so that they can comfortably tackle any physical activity."

There are also innumerable textiles and weaves all over the country, each with a long history and with specific skills that are passed on over generations of weavers from the same family or community. In fact, weaving techniques are as indicative of a region's cultural and sartorial legacies 복식 전문가들은 이러한 드레이프 방식이 지역 문화는 물론 지리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사리는 품이 넉넉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의상이므로, 착용했을 때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옷매무새를 연신 매만질 필요 없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과거 문서 기록과 그림을 살펴보면, 18~19세기 왕족 여성은 사리의 끝자락을 허리춤에 단단히 집어넣어 레깅스처럼 입고서 말을 타고 전투에 나서기도 했다. "사리를 입는 방식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기후, 생활 방식, 노동 방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밭일을 하거나 고깃배를 타는 여성은 신체 활동이 편하도록 사리를 바지 형태로 착용해요." 모한의 말이다.

사리는 다리 사이로 감아 허리춤에 집어넣어 반바지처럼 입을 수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다(왼쪽 페이지). 인도 푸네의 사원 밖에서 꽃을 파는 여인의 사리 차림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흔히 입는 '니비' 드레이프 방식이다(아래).

Saris can easily be pulled up and tucked at the waist to wear more like shorts, allowing greater freedom of movement (opposite). A woman selling flowers outside a temple in Pune wears her sari with a Nivi drape, the most common style throughout South Asia (below).

as drapes are. Some of the most well-known weaves are silks from Kanchipuram, Varanasi, Mysore, Patan, Uppada and Paithan; cottons from Kolkata, Chanderi, Coimbatore and Kotah and synthetic tie-dye work from Gujarat and Rajasthan, covering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country.

While cotton and silk remain the preferred fabrics, saris are now available in a stunning range of materials, from quick-drying polyester to organic jute. The weaves differ in their textiles, thread counts, colors and, most importantly, motifs, patterns and the intricacy of handiwork on the borders and the *pallu*. All these factors determine the price, which can start at 200 rupees (US\$3) and go all the way up to several hundred thousand.

Pavithra Muddaya, founder of the Vimor Museum of Living Textiles and owner of the exclusive 45-year-old sari boutique Vimor in Bangalore, says, "There is such an impressive plurality in Indian textiles, and our weaving traditions bring them together and keep them



사리 입기 운동 인도 전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물과 직조 방식이 있고, 각각의 방식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특정 가문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고유의 직조 기술은 드레이프 스타일만큼이나 해당 지역의 문화와 복식 유산을 보여 준다. 많이 알려진 직물로는 칸치푸람, 바라나시, 마이소르, 파탄, 우파다, 파이탄에서 만드는 실크와 콜카타, 찬데리, 코임바토르, 코타에서 만드는 면직물, 구자라트와 라자스탄의 홀치기 염색 직물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인도 전역에서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옷감은 여전히 면직물과 실크지만, 오늘날에는 건조가 빠른 폴리에스테르부터 삼베 등 다양한 직물로도 제작된다. 각 직조 방식은 직물의 종류, 밀도, 색상 그리고 문양, 패턴, 가장자리와 팔루의 수작업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이 모든 요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대는 200루피 (한화 약 3300원)부터 수십만 루피까지 천차만별이다.

"인도에는 놀랄 만큼 다양한 직물이 있는데, 이 모든 직물을 하나로 묶고 동시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랜 세월 전승된 전통 직조 기술이에요."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 위치한 '비모르 생활 all contemporary." She explains that with the migration of weavers across the country over the centuries, many of the practices from their native regions have blended with those of their adopted homes. "If in India everything seems to divide us, handlooms and hand-weaves are something that belongs to all of us equally."

In March 2015, two women from Bangalore made a pact to wear a sari at least 100 times before the year ended. The idea sprang from their concern over how the sari was increasingly being relegated to special occasions, especially by women in larger cities and towns, given the time it takes to match the required accessories and to drape it to an elegant finish. Thus #100sareepact was born. It rapidly turned into a mass movement, prompting women in multiple cities to post photographs of themselves in the day's sari on social media with the hashtag #100sareepact, along with a short description of their emotional associations with the chosen garment.



질 좋은 사리로 잘 알려진 바라나시의 사리 매장(왼쪽 페이지). 규모가 작은 바라나시의 사리 공장에서 직원이 명주실을 실패에 감고 있다(오른쪽).

A vendor displays saris at a shop in Varanasi, which is well known for the high quality of its saris (opposite). A worker attends to spools of silk at a small sari factory in the city (right).

섬유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45년 전통의 고급 사리 의상점 주인인 파비트라 무다야의 말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도 전역의 직조 기술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태어난 지역과 새롭게 정착한 지역의 기술이 뒤섞이는 현상도 발생했다. "인도에는 온통 국민을 갈라놓는 것만 존재하는 듯해도, 직조기와 손베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죠."

2015년 3월, 벵갈루루의 두 여성은 그해가 끝날 때까지 사리를 최소한 100번은 입겠다는 서약을 했다. 정해진 장신구를 하고 매무새를 다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리가 특별한 날을 위한 의상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였다. 그리하여 SNS상에서 '#100회사리서약'이라는 운동이 탄생했다. 이는 곧 대규모 캠페인으로 발전했고, 여러 도시의 여성들은 '#100회사리서약'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입은 사리에 관한 짧은 감상까지 덧붙여 게시하기 시작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이 서약을 시작한 주인공 중 한 명인 안주 마우드갈 카담은 '#100회사리서약'의 인기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들은 사리의 직조 방식과 문양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는 물론 개인의 과거까지 몸에 걸칠 수 있어요. 그전에 누가 왜 이 사리를 입었는지, 착용감은 어떤지, 언제 이 옷을 샀는지,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인지,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새로운 추억이 생겼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리에 차곡차곡 담겨 있는 셈이지요."

사리를 현대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의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다. 프라발 구릉, 사비아사치 무케르지를 비롯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실험을 해 왔다. 지퍼가 달린 기성복 사리, 휴대 전화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달린 사리도 등장했다. 우아한 사리를 입고 레드 카펫을 밟는 인기 스타와 초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리 차림으로 전 세계 런웨이를 활보하는 슈퍼 모델을 보면 사리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같다. 2011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인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정판 사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인도에서는 '#사리트위터'라는 해시태그 트윗이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다. 정치인부터 기업 중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많은 여성이 자신이 사리를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무다야는 "모든 여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리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VIRAL VESTMENTS Explaining #100sareepact's popularity, Anju Maudgal Kadam, one of the pact's cofounders, says, "We women wear the history of our world in the weave and motif of each sari, as also our own personal past — memories of who wore it before us, how we feel in it, when we bought it, why we wore it, how it made us feel, what new memories we created as we took it along ... The story of the weaver, farmer, spinner, artisan is woven into each sari as well."

There are also other attempts to make the sari more contemporary and relevant to the modern Indian woman. Celebrated fashion designers, including Prabal Gurung and Sabyasachi Mukherjee,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quirky silhouettes and unusual fabrics — think sari dresses, ready-to-wear saris with zippers and saris that have pockets for cell phones. From celebrities carrying off

"일례로 많은 젊은 여성이 사리에 티셔츠를 맞춰 입는데. 그 자체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사리는 신체의 결점을 가려 줌은 물론 어떤 연령, 체구, 체형의 여성에게든 잘 어울리고, 누가 입어도 우아해 보인답니다."

옷깃이 달린 셔츠, 데님 재킷 등에 사리를 매치해 스타일을 뽐내는 여성도 많다. 모한은 인도에서 사리가 외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에도 축제나 경사, 공식 행사가 있으면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리를 꺼내 입는다. 무다야에 따르면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가보 같은 일부 옷을 제외하면, 사리는 그 자체로 아주 실용적인 옷감이다.

"자신이 안 입는 사리를 그냥 버리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간이 요람을 만들거나 알록달록한 퀼트, 쿠션 커버로 활용해요. 개인에게 특별한 사리는 그렇게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되죠."

살아 숨 쉬고 진화하는 인도의 사리는 인도인의 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복식이자 정신이다. 착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통적 감성에 맞게 연출할 수도 있고, 최신 유행을 표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착용자의 '인도인다움'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사리는 이 나라 여성인 우리의 정체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다수 인도 여성은 사리를 자랑스럽게 입습니다." 마우드갈 카담의 말이다. "사리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답니다." 모한이 한마디 거들었다. ● 글차루케시 래마두라이 사진 보이즈로템

삼륜 택시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리 차림의 여인들(아래), 인도 여성들은 축제나 종교 행사 등에서는 서양 의복 대신 보통 사리를 착용한다(오른쪽 페이지).

Women in saris chat in front of an auto-rickshaw (below). Though Indian women also wear salwar kameez and Western clothing, saris are often donned for festive, formal or religious occasions (opposite).



elaborate sari costumes on red carpets to supermodels in futuristic versions of the good old sari strutting on international runways, this garment certainly seems to be on a path to revival. In 2011, French luxury brand Hermès even launched its own limited-edition saris in India as a way of gaining a foothold in the market.

Just a couple of months ago, Indian Twitter was abuzz with the hashtag #SareeTwitter, where women living all over the world, from politicians to corporate honchos, shared their favorite sari-clad images. "Every woman who wears the sari makes it her own in some way," says Muddaya. "I see so many young women pairing it with T-shirts, for instance, and I find it encouraging." Elsewhere, collared shirts and denim jackets are being accessorized with saris, along with sneakers or boots.

Indeed, one of the reasons many Indian women love the garment is because it's flattering and forgiving at the same time. Or as Muddaya explains, "The sari is a one-sizefits-all garment. It hides all kinds of flaws, is suitable for women of all ages, sizes and shapes and looks graceful on anyone who wears it."

Mohan adds that the sari can never become irrelevant in India because even today, wherever there's a festive, auspicious or formal occasion, most women reach for their favorite sari. Apart from being an heirloom passed on from mother to daughter, the sari is also an extremely practical piece of cloth. "If you think about it, a sari is rarely discarded completely," says Muddaya. "It's either gifted to someone else or recycled and repurposed in many ways. From makeshift cradles for babies to colorful quilts and cushion covers for the home, a special sari lives forever."

The sari remains very much a living and evolving fabric in India, with its traditional roots etched in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Indians. It can be as modest or as glamorous, as traditional or as trendy as the wearer chooses. More importantly, it's a striking symbol of the wearer's Indianness. As Maudgal Kadam says, "The garment is deeply entrenched in our identity as women from this country, and most of us wear it proudly." Or, to quote Mohan, "There are some times when only a sari will do." S By Charukesi Ramadurai Photographs by Boaz Rottem

